

KIA 광 재활캠프

재활훈련 7인 “‘럭키 세븐’되어 돌아오겠습니다”

서재용·나지완·김태영·김병현 등 개막전 복귀 구슬땀

‘비밀병기’곽정철·한기주·차명진 “올 시즌 꼭 뚫는다”

‘호랑이 군단’의 올 시즌을 좌우할 비밀병기가 광에서 만들어진다.

지난 16일 KIA의 스프링캠프가 일본 오키나와에 꾸러졌다. 그리고 다음날인 17일에는 7명의 선수가 광으로 이동해 또 다른 캠프를 차렸다. 재활 프로그램이 진행될 광 캠프, 소수정예지만 올 시즌 KIA의 전력을 좌우할 캠프가 될 전망이다.

광에서 올 시즌을 준비하게 된 이는 투수 서재용·김병현·김태영·곽정철·한기주·차명진 그리고 외야수 나지완 등 7명이다.

서재용이 부진으로 아쉬운 시즌을 보냈었지만 지난해 김병현과 김태영은 선발과 불펜으로 마운드 중심을 잡아줬다. 나지완은 4번 타자라는 타이틀이 어색하지 않을 만큼 확실히 자기 자리를 잡았다. 이들은 지난 시즌과 마찬가지로 올 시즌에도 팀의 주요 전력이다.

광 캠프의 핵심은 사실 곽정철·한기주·차명진이다. 이들은 지난 시즌 기록이 없다. 모두 부상에 시달리면서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다. 아직도 이들의 올 시즌은 미지수다. 그만큼 전력 외 선수들이지만 이들은 KIA가 신인드래프트에서 가장 먼저 선택을 했던 특별한 재능의 투수들이자 마운드의 희망이다.

강속구를 장착한 이들이 부상을 털어내고 마운드에 가세한다면 KIA의 전력도 눈에 띄게 탄탄해질 전망이다.

곽정철과 차명진은 지난해 광에서의 악몽을 잊고 광을 부활의 기지로 삼을 계획이다. 곽정철은 군복무를 마치고, 차명진은 신인으로 남다른 의욕을 갖고 지난해 광 캠프를 찾았다. 하지만 이들은 각각 무릎과 팔꿈치 부상으로 중도에 귀국을 하며 수술대에 올라야 했다.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낸 두 사람은 이번에는 기분 좋게 광 캠프를 마무리 하고 오키나와로 이동하겠다는 각오다.

프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차명진은 “일단 목표는 부상 없이 캠프를 잘 소화하는 것이다. 아직 부상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정상적으로 공을 던지고 있다. 준비 잘해서 2015시즌 마운드에서 역할을 하고 싶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곽정철에게는 시즌 준비의 연장 선상이다. 지난 12월 곽정철은 친구 윤석민과 광에서 차분하게 몸을 만들며 스프링 캠프를 위한 워밍업을 끝낸 상태다.

한기주에게도 이번 캠프는 특별하다. 팔꿈치를 시작으로 손가락, 어깨 수술이 이어지면서 ‘10억



광 재활훈련조인 KIA 투수 곽정철(왼쪽부터)·한기주·차명진이 지난 17일 캠프 출발에 앞서 챔피언스필드에서 올 시즌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팔’ 한기주는 많은 시간 마운드를 떠나있었다. 한기주는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이번 캠프의 집을 썼다.

한기주는 “착실하게 준비를 해오기는 했다. 마운드가 너무 그리다. 이제는 부상에서 벗어나서 팀에 역할을 하고 싶다. 예전의 화려했던 기억, 힘들었던 기억 다 잊고 처음 야구를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하겠다. 조금씩 하지 않고 완벽하게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11차례 실전 같은 연습경기 KIA, 캠프일정 확정

KIA 타이거즈가 오키나와에서 11차례 연습 경기를 갖고 시즌 운곽을 그린다.

KIA 타이거즈가 19일 오키나와 스프링 캠프 선수단의 연습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내달 15일 우라소에구장에서 열리는 야쿠르트와의 연습경기를 시작으로 라쿠텐(2월20일), 니혼햄(17일), 요코하마(19일), 히로시마(24·26

일) 등 일본 프로팀들과 7차례 연습경기를 갖는다.

한화·넥센·삼성 등 국내팀과의 연습경기 일정도 잡았다. 2월22일 킨구장에서 한화와 연습경기를 치르는 KIA는 25일과 27일 넥센을 상대한 뒤, 3월1일 삼성과 만나 실전 감각을 조율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년 연속 ‘우승컵 키스’

지미 위커, 소니오픈 23연패

최경주 44위·배상문 51위

지미 위커(미국)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소니 오픈에서 2년 연속 우승컵을 차지했다.

위커는 19일 미국 하와이주 호놀룰루 인근 와이알라이 컨트리클럽(파70·7044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4라운드에서 보기없이 버디 7개를 잡아내는 완벽한 경기를 펼쳤다.

합계 23연패와 257타를 적어낸 위커는 2위 스콧 피어시(미국·14연패와 266타)를 무려 9타차로 제치고 우승 상금 100만8000달러(약 10억9000만원)를 받았다.

지난 시즌 PGA 투어에서 3승을 거뒀던 위커는 2014-2015 시즌에도 승수를 추가, 신승 감자로 자리 매김했다.

또 지난해 현대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연장전에서 패트릭 리드(미국)에게 우승컵을 넘겨준 아쉬움도 털어냈다.

2타차 단독 선두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한 위커는 7번홀까지 파 행진을 하며 타수를 줄이지 못했다. 하지만 8번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홀 1m에 붙여 버디를 잡은 것을 신호탄으로 10번홀(파4)까지 3개를 연속 버디를 낚았다. 12번홀(파4)에서는 6m가 넘는 버디 퍼트를 홀에 넣으면서 2위 그룹과의 타수차를 6타로 벌려 우승을 예약했다.

3라운드까지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던 최경주(SK텔레콤)와 김형성(현대자동차)은 나란히 중·하위권으로 밀렸다. 2타를 잃은 김형성은 합계 8연패와 272타로 공동 30위에 머물렀다.

최경주는 전반에만 더블보기 1개, 보기 2개로 4타를 잃는 바람에 공동 44위(6연패와 274타)로 떨어졌다. 배상문은 5연패와 275타를 쳐 공동 51위로 대회를 마쳤다. /연합뉴스



“뭣 받을 줄 알았지?”

세계랭킹 3위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호주오픈 1회전을 기분 좋게 통과했다. 나달은 19일 호주 멜버른 로드 레이버 아레나에서 열린 호주오픈 테니스대회 첫 날 남자 단식 1회전에서 세계랭킹 49위인 마카일 유즈니(러시아)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0(6-3, 6-2, 6-2)로 승리하며 2회전 진출을 확정지었다. /연합뉴스

인천AG 금메달리스트 나주 출신 나아름 ‘사이클 대상’

나주 다시중 정설아 신인상

나주 출신 나아름(25·삼양사)이 사이클 대상을 수상한다.

대한사이클연맹은 오는 22일 서울 강남 노보텔 엠베서더 호텔에서 열리는 ‘2015 사이클인의 밤’에서 나아름에게 ‘2014 사이클 대상’을 수여한다고

19일 밝혔다.

나아름은 지난해 9월 열린 인천 아시안게임 사이클 경기에서 도로독주 금메달, 여자 단체추발 은메달, 유니폼 동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사이클의 위상을 높였다.

이어 10월 제주에서 열린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사이클 3관왕에 올라 기량을 이어갔다.

최우수선수상 수상자는 남자 일반부의 강동진(울산시청)·임재빈(금산군청)·손재용(한국체대), 여자 일반부는 이혜진(부산지방공단스포츠클럽)으로 결정됐다.

강동진·임재빈·손재용은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사상 최초로 남자 단체 스프린트 종목 금메달을 땀다. 이혜진은 지난날 영국 런던에서 열린 국제사

이클연맹(UCI) 트랙월드컵에서 경륜 동메달을 수확, 한국 사이클 사상 최초로 트랙월드컵 단거리 종목 메달을 손에 쥐었다.

최우수 신인상은 2014 세계주니어사이클선수권 대회 남자부 스프린트 금메달을 딴 남자고등부의 박재원(세인트 조지 칼리지)을 비롯해 여자고등부의 최슬기(진영고), 남자중등부 주민음(의정부중), 여자중등부 정설화(나주다시중)에게 돌아갔다.

최우수단체상은 남자 일반부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여자 일반부의 삼양사가 수상한다. /연합뉴스